

국가 안의 국가?:

퀘벡 분리주의의 전망

문영석 | 강남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캐나다학 부교수

프랑스는 1608년 오늘날 퀘벡시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최초의 프랑스인 정착촌을 만들었으며 16세기 초반부터 18세기 중엽까지 북미에서 최대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퀘벡인들은 1759년 영국군에게 점령당한 이래 마치 대양의 고도(孤島)처럼 북미 영어권 대륙에서 지난 400년간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를 유지해왔다. 퀘벡의 분리주의는 독립운동의 차원을 넘어 실제로 퀘벡의 독립여부를 묻는 두 번의 주민투표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캐나다의 연방제를 위협해 왔다. 주류인 영어권 캐나다와는 다른 언어·문화·인종적 독특성 때문에 그들은 캐나다에서 “별개의 사회”(distinctive society)를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퀘벡은 캐나다 건국의 양대 주역이었으면서도 어느덧 캐나다 동부 퀘벡이란 한 개의 주에 집중되어 점점 소수민족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현실을 파악한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이 자구책으로 지난 50년간 줄기차게 캐나다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해왔다. 퀘벡 분리주의는 북미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어권 문화 속에서 프랑스 문화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의 차원에서 보아야하기 때문에 그 속에 존재하는 민족적 개별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융합이라는 변증법적 논리에서 접근해야 한다. 본 논문은 세계와 지방을 연결해주는 세방화 시대라는 관점에서 본 퀘벡 분리주의의 전망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제어: 민족주의, 분리주의, 퀘벡, 세방화, 다문화주의, 조용한 혁명

I. 서 론

2006년 11월 26일 캐나다 연방 총리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는 연방의회에서 퀘벡은 캐나다 연방 안에서 “국가 안의 국가”¹(a nation within a united Canada)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캐나다 연방의회는 이 제안을 전폭적인 찬성(찬성 266, 반대 16)으로 통과시켰다. 실상 퀘벡의 분리주의 운동은 1960년대 이후 즐기차게 캐나다의 연방제를 위협해 온 최대 정치적 난제였다. 그러므로 캐나다 연방의회는 실제적인 독립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퀘벡 분리주의자들을 달래기 위한 유화 정책으로 통합된 캐나다 연방제 안에서 퀘벡의 실재를 “국가”라는 명칭으로 발의한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경제·문화면에서 국경이 없는 세계화도 진행되고 있지만 동시에 세계 도처에서 인종·문화·종교·지역이 결부된 신민족주의(neo-nationalism)도 급부상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 두 가지 경향이 동시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나라이다. 1960-70년대 퀘벡의 경제·문화적 민족주의는 좌파적 이데올로기에서 유래했지만 또 한편 전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다양한 인종과 문화 등이 함께 어울려 만들어 가고 있는 캐나다사회는 세계화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민족주의는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해석을 내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편협한 교조주의, 열광적 행동과 비이성적 헌신 등과 연결되어 부정적 인상을 먼저 풍기지만 펠레티에르(Pelletier)는 민족주의야말로 세계화로 인한 획일성의 압력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지구의 문화적 다양성을 살려낼 수 있는 기제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변한다 (Simon, 1997: 72).

2008년은 퀘벡(Québec) 창설 400주년이었다. 프랑수아인 탐험가 사무엘 드 샴플랭(Samuel de Champlain)은 1608년 오늘날 퀘벡시가 위치하고 있는 세인트로렌스 강을 굽어보는 절벽위에 프랑스 요새를 세웠고 최초의 프랑스인 정착촌을 만들었다. 16세기 초반부터 18세기 중엽까지 북미에서 최대의

1. <http://www.cbc.ca/canada/story/2006/11/22/harper-quebec.html>(검색일: 2008년 12월 3일).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신 프랑스(La Nouvelle-France)의 후손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마치 대양의 고도(孤島)처럼 갇힌 상황에서도 영어권 북미 대륙에서 지난 400년간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를 유지해왔다. 퀘벡은 캐나다 건국의 양대 주역이었으면서도 어느덧 캐나다 동부 퀘벡이란 한 개의 주에 집중되어 점점 소수민족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현실을 파악한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이 자구책으로 지난 50년간 줄기차게 캐나다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해왔다. 퀘벡의 분리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는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민 및 조기유학 대상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무관심할 수 없는 지역이다. 퀘벡의 분리주의는 독립운동의 차원을 넘어 실제로 퀘벡의 독립여부를 묻는 두 번의 주민투표를 거치면서 끊임 없이 캐나다의 연방제를 위협해 왔다. 주류인 영어권 캐나다와는 다른 언어, 문화, 인종적 독특성 때문에 그들은 캐나다에서 “별개의 사회”(distinctive society)를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퀘벡은 불어권 캐나다를 대표하는 주이며 면적은 1,540,680km²이고 캐나다 전 국토의 15.5%를 점하고 있다. 주민의 80.1%(2006년)²가 불어를 상용하고 83.2%(2001년)³가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지만 유럽처럼 실제로 주일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는 매우 소수이다. 주민의 80%가 세인트로렌스 강변 유역의 도시에 살고 있으며 인구 360만 명의 몬트리올은 퀘벡 주 최대 도시이자 동시에 전 세계에서 파리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불어권 도시이다. 불어문화와 정체성을 보호하고자 그 이전까지 퀘벡의 공공장소 어디에서나 상용되던 영어를 제한하고 1974년부터 불어를 주의 유일한 공용어로 정한 이후 수많은 영어권 회사들이 토론토나 기타 영어권 주들로 이주해버린 결과 캐나다 최대 도시의 자리를 1976년부터 토론토에게 물려주었다. 캐나다 건국의 양대 주역이었던 영국계와 프랑스계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이질적인 두 집단이 한 나라 안에서 공생하기 위해서 언제나 지난한 협상과 정치적 게임을 벌여야 했

-
2. Single and Multiple Language Responses (3) and Sex (3) for the Population of Canada, Provinces, Territories, Census Metropolitan Areas and Census Agglomerations, 2006 Census, Statistics Canada(검색일 2009년 1월 20일).
 3. Selected Religions, for Canada, Provinces and Territories, 2001 Census, Statistics Canada(검색일: 2009년 1월 20일).

다. 1960년대 이후 퀘벡의 분리주의 운동은 늘 내연(內燃)해오다가 특별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 확 불타오른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5년 10월 30일 퀘벡 주의 470만 유권자 중 90%가 투표한 주민투표의 결과 49.4% 찬성, 50.6% 반대로 단 1%의 차이로 분리주의자들의 독립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고 기회만 되면 언제라도 다시 재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캐나다는 현재 전 세계에서 몰려든 다양한 이민자들로 인해 전 세계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다문화주의를 문화정책으로 삼은 나라이지만 또 한편 세계화에 역행하는 민족주의도 기승을 부리는 독특한 나라이다. 더구나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세계화는 미국화(Americanization)라는 비판의 대상인 미국 바로 옆에서 퀘벡 민족주의의 발흥은 매우 흥미로운 사례이다. 본 논문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구조화되고 있는 세계화라는 거센 물결 앞에서 퀘벡 민족주의의 발흥(發興)의 원인을 분석하고 세계화와 민족주의라는 두 개의 상반된 사조가 어떻게 조우할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민족주의를 세계화에 반대되는 혹은 단순히 극복해야 할 구 시대적 이데올로기로 바라보기 보다는 오히려 범람하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각각의 민족이 지닌 고유한 권리와 여기서 파생한 민족주의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논의의 대상에서 간과되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면 세계화와 민족주의라는 역설적인 관계의 고찰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II. 신대륙의 개척과 신 프랑스

신대륙 발견은 콜럼버스가 처음은 아니었고 이미 1000년경부터 북유럽의 바이킹(Vikings)들이 래브라도와 뉴잉글랜드 지역에까지 드나들었던 흔적(Morton, 2001: 16)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신대륙 탐사와 진출이 시작된 것은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였다. 신대륙은 유럽인들에게 풍부한 자원과 무한

한 가능성을 지닌 땅으로 다가왔으며 탐험의 주된 목적은 모피, 생선과 같은 상업적 교역과 중국에 이르는 통로를 발견하기 위해서였다. 1534년 프랑스인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Jacques Cartier)가 처음으로 캐나다 내륙으로 들어가는 세인트로렌스 강을 발견하였지만 본격적인 정착을 시도한 것은 1608년 프랑스인 사무엘 드 샴플렌(Samuel de Champlain)이 세인트로렌스 강을 굽어보는 퀘벡시 절벽위에 프랑스 진지를 구축하고 정착을 하였다. 원주민들이 이 지역을 “카나타”(Kanata)(*The Canadian Encyclopaedia*, 1999: 355)라고 불렀는데 의미는 “마을” 혹은 “거주지”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후일 캐나다의 국명이 되었다.

신대륙 진출에 있어 유럽각국이 앞 다투어 신대륙을 공략하였지만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북미 대서양 연안 곳곳에 거점을 만들고 자국의 이주민들을 정착시켰다. 프랑스는 오늘날 퀘벡을 중심으로 신대륙 진출의 거점을 삼았고 1663년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는 이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고 “신 프랑스”(Linteau, 1988: 140)라 명명하였다. 프랑스는 내륙을 관통하는 세인트로렌스 강을 따라 점점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왔고 미주리 지역과 오하이오 강 유역으로부터 미시시피 강을 따라 그 영역이 남부 멕시코 만에 이르렀으며 이 일대를 프랑스 왕 루이의 이름을 빌려 루이지애나(Louisiana)로 불렀다. 영토 확장은 필연적으로 영·불간의 대결을 가져왔으며 루이 14세의 뉴 올리언즈 점령계획과 1750년대 오하이오와 미시시피 강을 따라 프랑스 요새지를 구축하려고 했던 것은 남쪽의 스페인과 연합하여 영국세력을 분산시키고자 했던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었다. 결국 잘못 기획된 팽창주의는 1759년 9월18일 에이브라함 평원(Plains of Abraham)에서 프랑스군이 영국군에게 참패하였고 이듬해 1760년 프랑스군의 재탈환 작전마저 실패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칠년전쟁(The Seven Years' War)에서도 패한 프랑스는 1763년 2월10일 파리조약에 의해 북미에 있던 “신 프랑스” 식민지 대부분은 영국에 할양되었고 루이지애나(Greer, 1999: 120-121)⁴는 칠년전쟁에 참전한 스

4. 칠년전쟁(The Seven Years' War)은 1756-1763까지 슐레지엔 영유를 둘러싸고 유럽 대국들이 돌로 갈라져 싸웠지만 동시에 해외 식민지를 둘러싼 영국·프랑스 양국 간의 오랜 싸움이었다. 이 전쟁에 참전한 스페인에게 프랑스는 루이지애나를 넘겼지만 1800년 다시 프랑스에 반환되었으나 1803년 프랑스는 현 미국 영토의 23%에 해당

페인에게 할양되었다. 퀘벡이 함락되었을 때 식민지 관료와 장교들은 탈출해 버렸고 이곳에 남아 있었던 프랑스계 인구는 대부분이 농민이었지만 60,000명 정도였다(문영석, 2005: 31-32).

이 무렵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캐나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동부 연안에 살고 있던 프랑스계 정착민들을 아카디아인(Acadian)이라 불렀는데 이들을 영국군이 강제 추방해버린 사건이었다. 마치 스탈린이 러시아 동부 연안에 살던 한국계이민인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하루아침에 강제 추방해 버렸듯이 당시 영국인들도 1755년부터 1762년까지 11,000여 명의 프랑스계 이민들을 먼 남쪽 조지아나 루이지애나까지 추방해버렸으며 특히 1758년에는 2,000명에서 3,000명으로 추산되는 아카디아인 대부분이 항해 도중 풍랑에 휩쓸려 익사하였다. 이 당시 이 지역에 살던 프랑스계 정착민들 중 4분의 3이 추방되어버렸고 추방당시 인근으로 도피하여 간신히 살아남았던 자들도 질병과 영양실조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었다(Lahey, 2002: 39).

영국은 신 프랑스 식민지를 점령하여 막대한 영토를 얻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남쪽 13개 식민지들의 독립혁명을 이끌어내는 도화선이 되었다. 왜냐하면 새로 얻은 광대한 식민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졌으며 결국 과도한 세금착취에 시달리던 식민지인들에게 불만을 야기시켰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1774년 제정된 퀘벡 법(Québec Act)은 옛 신 프랑스 영토이던 오하이오-미시시피 지역에 미국인들의 정착을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자들인 프랑스인들의 종교와 언어를 그대로 유지하게 만들어준 이 법은 종교적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온 개신교도인 남부 영국인들을 격분시키기에 충분했다(Saywell, 1994: 24).

개신교계인 영국 식민지정부는 가톨릭 신자들인 퀘벡인들에게 처음에는 흡수정책을 추진하였다. 새로운 식민지에 부여된 갖가지 제약들은 경제적 제약에서부터 이민자들 수급에 이르기까지 영국계에 흡수 내지는 일방적인 영국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영국은 이곳에 우선적으로 백인 정착 식민

하는 엄청난 넓이의 이 땅을 \$ 23,213,568 에 미국에 매각하였다(*The Canadian Encyclopedia*, 1999: 1622).

〈표 1〉 식민지 초기시대 영국계와 프랑스계 이민 도표

연도	캐나다	퀘벡	온타리오
1665	3,215		
1765	69,810		
1825		479,288	157,923
1851		890,261	952,004

출처: Compiled from Census of Canada, J. Lacoursière, J. Provencher, and D. Vaugeois, *Canada. Québec. Synthèse historique* (1977).

지”를 건설하기 위해 매우 인종차별적인 이민정책을 실시(Stasiulis and Jhappan. 1995: 97-99)하였는데 새로운 식민지의 주인이 된 영국은 다수의 프랑스계를 제압하고 광대한 캐나다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다수의 영국계 이민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일차적으로 스코트랜드와 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계 이민들이 들이닥쳤으며 후일 미국의 독립전쟁에 실망한 남쪽 영국인들이 대거 북으로 올라왔는데 이들을 왕당파(Loyalist)⁵라고 불렀다. 아래의 인구도표는 당시 영국이 얼마나 인종차별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위 도표는 영국이 점령했을 당시 원주민을 제외하면 프랑스계 인구뿐이었지만 100년도 안되어 영국계인 들의 주 거주지인 어퍼 캐나다의 인구가 벌써 프랑스계 인구를 앞지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정책은 1867년 캐나다 연방이 창설된 후에도 1967년 이민법이 점수제(point system)⁶로 개정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영국의 흡수 정책은 시초부터 압도적인 프랑스계 인구의 집단적 반발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남쪽에서 일어난 미국독립전쟁을 진압해야 했던 영국은 프랑스계 인구의 협조가 절실했기 때문에 “포섭정책”(inclusion

-
5. 미국혁명당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지 않고 본국의 왕정체제를 따르기를 원했던 왕정주의자들을 영국에 계속 충성한다는 의미에서 Loyalist들이라고 부르며, 독립전쟁 후 대거 북쪽 캐나다 지역으로 이주해왔다.
 6. 이때부터 유럽이나 미국지역의 백인들에게 특혜를 주었던 종래의 지역별 할당제(Quarter System)를 삭제하고 모든 지역의 이민자들이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학력, 언어구사능력 그리고 기술 등이 캐나다의 국익과 노동력 시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점수제”로 바뀌었다.

〈표 2〉 프랑스계와 나머지 캐나다 인구 도표(1871~1931)

연도	퀘벡	영어권 캐나다
1871	1,191,516	3,689,256
1901	1,648,898	3,722,417
1921	2,360,510	6,427,439
1931	2,874,662	7,502,124

출처: M. C. Urquhart and K. Buckley, *Historical Statistics of Canada*.

policy)(Lee, 2004: 186)으로 바뀌었고 이런 유화적인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프랑스계의 구심점인 가톨릭교회를 통해 다스리는 것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1774년 퀘벡법을 제정하고 프랑스계인 들의 종교와 언어, 그리고 프랑스 시민법을 부활시켰다. 그러나 사회 상층부와 몬트리얼을 중심으로 경제계는 영국계가 장악하기 시작했으며 프랑스계는 농업이나 수공업이 고작이었을 뿐 사회의 하층민으로 전락해갔다. 1759~1760년 영국의 정복, 1837~1838년 퀘벡인 들의 반란과 진압, 1917년과 1942년 일·이차 세계대전시 강제징집, 1982년 캐나다 헌법에서의 퀘벡의 소외 등 오랜 세월 쌓여 온 역사적 앙금은 퀘벡인 들의 뇌리에 깊은 상처로 남았고 후일 퀘벡 민족주의가 태동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었다.

III. 조용한 혁명(Révolution tranquille)과 퀘벡 민족주의의 발흥

민족주의에 대한 정의는 “어떤 특정지역이나 국가에서 공통의 역사, 종교, 언어, 종족”(The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 2005: 2051)들에 의해 형성된 구성원 간의 집합적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이다. 민족(nation)과 국가(state)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민족이 문화·인종에 기반을 둔 개념이라면 국가는 독자적인 통치기구를 갖는 정치·지정학적 실재에 기반을 둔 개념이기 때문이다.⁷ 톨리(Tilly, 1994: 116-117)에

의하면 20세기 들어 두 가지 성향의 민족주의가 있는데 국가 주도의 민족주의와 국가 추구의 민족주의로 분류하고 있지만 양자 간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으며 서로를 자극하기도 한다. 즉 국가주도의 민족주의는 통치자가 국가의 다양성을 극복하기위해 표준화, 획일화된 언어, 역사, 국민의식 등을 인위적으로 부여하여 자국민의 동질성과 통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치적 이념이다. 반면 국가 추구의 민족주의는 국가 내 하위 소수민족집단이 뚜렷한 문화적 정체성과 귀속감을 바탕으로 독자적 국가 내지는 정치적 독립성을 획득하려는 민족주의를 지칭한다. 민족주의는 인종적 정체성과 주도권 장악을 위해 필연적으로 정치행위로 귀결되는데 퀘벡인 들도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 및 보호에서 출발한 저항적·방어적 민족주의는 지속적으로 정치적 민족주의를 창출해내었다.

과거에는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요소는 종교와 언어였다. 그러므로 영국의 정복이후 프랑스의 전통적인 문화와 언어 및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퀘벡인 들은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었다. 1950년대 후반까지 퀘벡은 가톨릭교회가 정치뿐만 아니라 교육·의료·사회사업 등 사회의 모든 부면을 장악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 군수물자 공장들이 캐나다에 세워졌는데 종전 후 이런 시설들이 산업시설로 탈바꿈하면서 영어권 캐나다는 일시에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에로 눈부신 속도로 탈바꿈하고 있었지만 퀘벡은 아직도 사회제도 자체가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 모더니즘의 거센 도전에 당혹했던 당시 가톨릭교회는 사회주의·산업화·도시화 등의 현대적 경향들을 모두 배격하였으며 오히려 신자들에게 안정적인 사회체제를 이룩했던 중세시대의 크리스천 사회로 회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퀘벡은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의 본거지였지만 퀘벡의 최대 상공업 중심지인 몬트리올에서조차 영어가 공용어로 통용되었고 불어는 고작 집안에서나 사용하는 언어였다. 정치와 상·공업을 장악한 영국계 캐나다인들은 지배층을 형성했고 프랑스계는 농업과 공장이나 부두에서 일하는 노동계층이었으며 이런 격차는 프랑스계를 소위 “이등시민”이

7. <http://geography.about.com/cs/politicalgeog/a/statenation.htm>(검색일: 2009년 2월 20일).

나 혹은 “하얀 흑인”으로 평가절하 시켰고 사회 모든 부문에서 차별과 소외를 감수해야 했다.

20세기는 해방의 세기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탈 식민지적 흐름은 퀘벡인 들에게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새로운 촉매제가 되었다. 근대화에 대한 갈구는 퀘벡사회의 모든 부문을 개혁하게 만들었으며 이 혁명적 사건이 아무런 유혈사태 없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조용한 혁명”(Révolution tranquille)이라 불렸다(Lahey, 2002: 93). 퀘벡 자유당 정권의 장 르사지(Jean Lesage)는 퀘벡이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퀘벡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혁명은 1960년부터 1966년 사이 정치적 개혁에서부터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공교육제도 도입, 에너지의 국유화와 퀘벡연금제도(Québec Pension Plan)의 독립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걸친 대개혁이었으며 혁명의 이념적 기반은 신민족주의였다. 이때부터 퀘벡인들 사이에 “자기 집에서 주인(maîtres chez nous)이 되자”라는 구호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며 캐나다 연방과의 관계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961년부터는 대외적으로도 파리, 런던, 뉴욕 등 주요도시에 캐나다 대사관이 아닌 독자적인 퀘벡대표부(Maisons du Québec)(Fry, 2002: 339)⁸를 두기 시작했고 프랑스와는 문화 및 교육에 대한 상호간 특별조약을 체결했다. 조용한 혁명 이후 퀘벡은 빠른 속도로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룩해내 소위 “로렌스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용한 혁명의 여파는 이후 퀘벡인 들의 민족적 자존심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유산의 고수와 맞물리면서 캐나다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분리주의” 운동으로 급격하게 발전해 나갔다. 일부 퀘벡 민족주의자들과 마르크시스트 극렬좌파들이 연합하여 1963년부터 퀘벡 해방 전선(Front de libération du Québec)이란 테러단체가 창설되었고 주요 공격대상은 영국계 기관과 상점이 되어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다. 이 무렵 퀘벡 분리주의자들을 고무하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당시 프랑스 대통령 샤를르 드골(Charles de Gaulle)의 캐나다 국빈 방문이었다. 드골은 1967년 7월 24일 몬트리얼 시청 앞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퀘벡

8. 현재 전 세계 26개국 36개 도시에 퀘벡대표부를 두고 있다.

해방 만세, 프랑스계 캐나다와 프랑스 만세!”(Vive le Québec libre! Vive le Canada français! Et vive la France!)(Thomson, 1988: 199)를 선창하여 공개적으로 퀘벡의 독립을 지지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즉각 드골의 출국을 요구하였지만 이미 그의 선언은 활활 타고 있던 퀘벡 민족주의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되었고 이후 퀘벡 분리주의자들의 대표적인 구호가 되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한번 불붙은 퀘벡 분리주의 운동은 날로 격화되어 퀘벡 해방 전선(FLQ)에 의한 테러들이 감행되었다. 1969년에는 몬트리얼 증권거래소에 폭탄을 투척하여 5명의 사상자를 내었으며 1970년에는 영국통상담당관 제임스 크로스(James Cross)가 납치되고 퀘벡 해방 전선과 협상을 시도하던 퀘벡 노동부 장관 피에르 라포르트(Pierre Laporte)가 살해되는 등 소위 “10월 위기”(October Crisis)가 일어나 연방 총리 피에르 트뤼도(Pierre E. Trudeau)는 퀘벡 역사상 처음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여 497명을 검거하고 사태를 수습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폭력적인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유혈사태는 퀘벡인 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 지지도 이때를 기점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온건한 정치적 해결방법을 내건 퀘벡당(Parti Québécois)이 부상하기에 이른다.

퀘벡 주 정부는 이때부터 노골적으로 불어계 주민들에게 경제적 우선권을 주기위해 직장에서 보다 더 나은 직책을 주도록 압력을 가했고 경제계도 프랑스계 기업인들에게 온갖 특혜를 부여했다. 또한 에너지국유화 정책으로 퀘벡 전기회사(Hydro-Québec)를 국유화시켰고 프랑스계 금융기관(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을 창설하여 후일 북미 최대 금융기관중의 하나가 되었다. 오랜 세월 억눌려왔던 프랑스계 주민들의 반감을 이용하여 퀘벡의 독립을 정강정책으로 삼은 퀘벡당이 1968년 창당되었다. 그 와중에 민감한 언어 문제 사건이 터졌는데 연방 운수성 장관이 퀘벡 내 항공노선에서 불어와 영어가 공용되도록 허용하였다가 영어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취소되는 사건이 있었다. 오랫동안 잠재해 있던 이중 언어 정책에 대한 반감이 갑자기 폭발했다가 또 그렇게 사라졌지만 프랑스계 주민은 이 사태를 잊지 않았다. 1976년 11월 15일 퀘벡 주 선거에서 사회, 민주개혁과 퀘벡의 독립을 내건 분리주의자들의 정당인 퀘벡 당이 승리하여 퀘벡 주의 정권을 쥐게 된 것이다.

IV. 퀘벡 분리주의의 분석과 전망

퀘벡은 절대 다수 (Fry, 2002: 324)⁹를 접하는 영어권 북미 대륙에서 민족, 언어, 문화, 종교 등이 자신을 둘러싼 영어권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은 여러모로 구별된 “별개의 사회”(société distincte)라고 주장해왔다. 그들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권한 축소와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위해 연방정부와 대결 내지는 지난한 협상을 이끌어왔다. 퀘벡 민족주의자들은 프랑스 문화와 언어를 북미대륙에서 잔존시키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독립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구호였다. 지난 50년간 퀘벡 분리주의자들은 “우리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주인”(maîtres chez nous), “평등 아니면 독립”(égalité ou indépendance), “독립-연합”(souveraineté-association), “구별된 별개사회”(société distincte) 등 그때그때 마다 다양한 구호를 내걸면서 퀘벡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캐나다 연방제를 위협해왔다.

1. 언어 정책

언어는 문화유산의 핵심이다. 오늘날 영어의 세계화와 더불어 수많은 소수 민족들의 언어들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해야 하듯이 언어의 다양성도 보존되어야 한다. 언어는 그 자체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가꾸고 다듬어온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에 민족적 주체성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갖고 있다. 1867년 캐나다가 자치령이 설립되었을 때 입안된 북미조례(British North America Act)에 의하면 불어도 영어처럼 퀘벡 의회나 사법부에서 공용어로서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지만 1969년 까지 캐나다 사회의 단일 공용어는 영어뿐이었다. 과거 각 민족의 문화적 정

9. 현재 미국에서 프랑스계 후손들이 1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실제로 불어를 모국어로 하는 인구는 캐나다와 미국 전체 인구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체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종교와 언어였기에 퀘벡도 예외는 아니어서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을 단합시켜온 구심점은 가톨릭과 프랑스어였다. 그러나 서구에서 가장 세속화된 현대 퀘벡사회에서 종교는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위력은 없어졌지만 언어는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퀘벡인 들은 불어의 공용어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19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1910년 영어와 불어의 공용을 명시한 라베르네(Lavergne) 법안을 필두로 1967년 농산물 표시에 불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과 1969년 불어 장려 법안(Bill 63) 등을 통과시키며 퀘벡 내에서 불어사용을 점점 강화시켜 나가자 연방정부도 퀘벡인 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불어도 공용어로 허용하는 “이중 언어와 이중문화에 관한 왕립위원회”(The Royal Commission on Bilingualism and Biculturalism)가 1963년 개설되어 1969년까지 심의에 들어갔다. 1969년 드디어 불어도 연방의회, 사법부, 각종 행정기관, 국영회사에서 공용어로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용어 법안(Official Language Act)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었다.

1971년 캐나다 통계청 인구조사는 불어가 심각한 위협에 빠져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1951년에 프랑스계 캐나다인은 퀘벡 인구의 83%를 점했으나, 1971년에는 80%로 감소하였으며 퀘벡 주에 정착한 이민자들도 주류의 언어인 영어를 선호하여 불어보다는 영어를 배웠고 자녀들도 영어 학교에 진학시켰다. 퀘벡 분리주의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시하면서 퀘벡의 언어,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독립만이 유일한 대체수단이라고 선동하였으며 이후 언어문제는 퀘벡 분리주의의 최대 현안이 되었다. 1974년 퀘벡 주 총리 로베르 부라사(Robert Bourassa)는 법안 제22항을 통과시켜 불어를 퀘벡 주 내의 유일한 공용어로 선언하였다. 특히 이 법안은 이민자 자녀들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불어 사용 학교에 보내도록 압박을 가했다. 이런 강제정책은 캐나다 영어권 지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신규 이민자들도 퀘벡에 정착을 꺼리는 주요 이유가 되었고 영어권의 불만이 비등했다. 그러나 퀘벡의 민족주의자들은 영어를 불어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1976년 퀘벡 지방선거에서 정권을 장악한 퀘벡당은 바로 그 이듬해인 1977년 불어를 퀘벡의 유일한 공용어로 직장, 정부,

상업 간판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제101법안(Bill 101)을 통과시켜 불어강제 정책의 절정을 이루었다. 그 결과 이때까지 캐나다의 상·공업 중심지였던 몬트리얼의 경제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영어권 경제인들과 퀘벡에 본사를 둔 많은 영어권 기업들이 영어권의 중심지인 토론토나 다른 영어권 지역으로 이주해갔다. 통계에 의하면 1976~1986년 사이 10년간 퀘벡을 떠난 영어권 주민의 숫자는 147,000명이나 되었다(Gibbins, 1990: 49).

불어 강제 법은 캐나다 연방이 규정한 “권리들과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의 정신과 기본적으로 대치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일후 수많은 법정투쟁을 야기 시켰다. 결국 빗발치는 반대여론과 상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영어의 현실적 힘에 굴복한 퀘벡 자유당 정부는 1988년 제101법안을 수정한 이후 옥외의 모든 간판과 표지판은 불어를 유지하되 실내에서 사용되는 표지나 안내서는 이중 언어를 허용하지만 그래도 불어는 좀 더 두드러지게 써야한다는 제178법안(Bill 178)을 통과시킨 이후 영어권 퀘벡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영어권은 퀘벡이 영어를 배척한다면, 왜 영어권 캐나다에서는 불어를 공부하고 굳이 불편한 이중 언어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를 반문하였지만 퀘벡의 자유당 정부 총리 부라사는 퀘벡에서 불어를 보존하는 것은 다른 주에서의 불어 보존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강변하였다. 퀘벡인들이 이토록 불어강제정책에 집착하는 이유는 언어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없는 한 퀘벡문화의 보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2. 주민투표

퀘벡의 독립을 정당의 강령으로 내건 퀘벡 당은 1970년대 초반은 퀘벡의 회를 장악하지 못했으나 퀘벡인들의 완전고용을 주장하면서 사회민주주의를 정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최종적 대안은 독립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중들의 인기를 끌었다(Salée and Coleman, 1997: 268). 1976년 11월 15일 처음으로 르네 레베크(René Lévesque)가 이끄는 퀘벡당은 다수

당이 되어 퀘벡 의회를 장악하였고 즉시 여세를 몰아 퀘벡당은 독립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퀘벡인 들이 아직 완전한 독립을 추구하기에는 불안하게 느끼는 점을 간파하고 좀 더 온건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정치적으로는 독립하되 경제적으로는 캐나다와 연합하는 소위 “독립-연합”(souveraineté-association) 제안이었다. 드디어 1980년 5월20일 퀘벡의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가 있었다. 분리주의자들은 주민투표 문항을 퀘벡 주민이 거부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복잡하고 모호하게 만들었는데 주 내용은 “독립-연합”에 관한 협상을 위임하겠다는 것을 퀘벡 주민들에게 묻고, 협상 결과는 다시 주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88%의 퀘벡 주민이 투표하였고 결과는 찬성 40.5%, 반대 59.5%로 연방주의의 승리로 끝났다.

퀘벡의 독립이 주민투표에 의해 좌절되었지만 캐나다 연방정부와 퀘벡정부는 헌법문제로 지난 30년간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1981년 캐나다 연방정부는 옛 영국식민지의 유산인 북미조례를 폐기하고 자체적인 신헌법을 제안했다. 퀘벡은 신헌법의 개정안에 퀘벡이 비토권한을 갖도록 요구했으나 좌절되자 신헌법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연방 총리 트뤼도는 포기하지 않고 1980년 10월 영국 정부로부터의 헌법 이양, 헌법수정 공식(公式)의 규정, “권리와 자유 헌장”의 문제를 연방의회가 단독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뤼도가 이끄는 자유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방의회의 승인은 문제가 없었고, 영국도 이제는 거부할 입장이 아니었다.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그동안 캐나다의 헌법으로 사용되어왔던 “영국 북미 조례”는 역사의 뒤꼍으로 사라지고, 1982년 4월 17일 캐나다 여왕¹⁰ 엘리자베스 2세는 오타와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캐나다 자체 헌법을 공포하였다.¹¹ 그러나 퀘벡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캐나다는 새로운 헌법을 가지게

10. 영연방인 캐나다는 입헌군주국이며 국가수반은 엘리자베스 2세가 캐나다의 여왕으로서 총독을 통해 명목상 통치를 하고 있다.

11. 캐나다는 1982년까지 자체헌법이 아니라 영국의회가 1867년 3월 29일 영국의회 제도를 그대로 본 딴 “영국북미조례”를 헌법으로 사용하였으며 헌법 개정은 캐나다의회의 요청으로 영국의회가 의결하는 과정이었다. 1982년 캐나다는 과거 영국식민지의 유산인 “영국 북미조례”를 폐기하고 자체헌법을 마련하였다(문영석, 2005: 143).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캐나다 연방정부 총리들은 계속 퀘벡을 헌법안에 동의하도록 지루한 협상과정을 거쳤지만 아직까지 퀘벡은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 총리들은 이후에도 퀘벡을 신헌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았고 1986년 퀘벡 주 선거에서 연방주의자들인 퀘벡 자유당이 집권하자 1987년 당시 연방정부 브라이언 멀루니(Brian Mulroney) 총리는 다시 헌법안을 상정했는데 이를 “미치레이크 협약(Meech Lake Accord)”이라고 한다. 이 협약의 주 내용은 퀘벡을 “구별된 사회”로 인정하고 일정수의 상원위원과 대법관수의 보장, 그리고 헌법 개정 시 모든 주의 동의와 주 정부가 의료·교육·사회복지 등에 대한 연방 정부 보조프로그램에서 탈퇴할 경우 연방교부금 전액 보상 등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 협약안도 연방 정부의 권한 약화와 강화된 주 정부 권한확대, 퀘벡의 “구별된 사회” 조항이 향후 자칫 캐나다 모든 주들 간의 동등성을 해칠 수 있다는 영어권 주들의 의구심과 헌법안에서 소외된 원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결국 불발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퀘벡은 더 이상의 타협을 거부했으며 1990년 정치적 카리스마가 강한 루시앵 부샤르(Lucien Bouchard)는 퀘벡 주안에서만 독립을 부르짖을게 아니라 이제 연방의회 안에서도 퀘벡의 독립을 대변할 수 있는 연방차원의 정당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퀘벡연합(Bloc Québécois)을 창당하였다. 미치레이크 협약의 무산은 퀘벡인들에게 또 한 번의 수치심을 안겨주었으며 최소한의 요구마저도 영어권에 의해 거부당했다는 분노가 또 다시 독립에 대한 지지율을 치솟게 만들었다. 퀘벡당은 분노한 민심을 부추기면서 이제 독립은 필연적인 것이라며 분리주의자들을 선동하였고 당시 퀘벡 주 총리 부라사도 더 이상 헌법협상을 위한 주 총리들의 회합은 거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다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헌법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심하였고 1992년 8월 28일 또 다시 샬롯타운 협약(Charlottetown Accord)안을 내놓았다. 이 협약안은 인구가 적은 주들과 원주민들의 불만 그리고 퀘벡의 “구별된 사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소위 “캐나다 조항”(Canada clause)이라는 통합 안을 내놓았지만 1992년 캐나다 전국에서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 동부 연안 주들과 온타리오 주에서는 근소한 차

이로 협약 찬성파가 승리하였지만 그 밖의 6개 주와 2개 준주에서, 그리고 전체 캐나다인의 54%가 협약안을 반대하여 또 다시 신헌법개정안은 무산되어 버렸다.

헌법개정안에서 두 번이나 영어권으로부터 거부를 당한 퀘벡에서는 1994년 분리주의자들의 정당인 퀘벡 당이 다시 정권을 잡자마자 1년 안에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번에도 투표의 문안은 독립의 가부를 묻는 단순 문안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차적 전제가 달린 복잡한 문안이었다. 두 번째 독립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의 문구는 아래와 같다.

퀘벡정부가 퀘벡의 미래를 존중하는 법안과 1995년 6월 12일 서명된 합의¹² 범위 안에서 캐나다 연방정부와 새로운 경제·정치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는 공식적인 협의를 거쳐 당신은 퀘벡이 독립국가가 되는 것에 찬성합니다¹³

캠페인이 시작될 무렵에는 독립을 찬성하는 쪽은 40% 정도에 머물렀지만 대중적 인기가 있는 정치인 부샤르는 캐나다연방정부가 결국 퀘벡의 독립협상안에 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선동하였다. 1995년 10월 27일 영어권 캐나다인들이 전국에서 몬트리올로 몰려들어 퀘벡의 캐나다 연방 내 잔류를 호소하는 군중대회를 가진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보였다. 다수의 부동표는 이 군중대회를 계기로 오히려 독립 찬성으로 기울게 되었다. 그 이유는 영어권 캐나다인들이 1990년과 1992년 헌법 협상안들을 무산시킨데 대한 반감이기도 했다. 주민투표의 개표 과정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것이었다. 1995년 10월30일 퀘벡 주의 470만 유권자 중 90%가 투표한 주민투표의 결과는 49.4% 찬성, 50.6% 반대였다. 찬반의 득표수 차이는 무효표보다도 적은 것이어서 캐나다 전국을 경악하게 만들었다(문영석, 2005: 148). 두 번째의 주민투표에서도 역시 노년층을 비롯한 보수층 기성세대들은

12. 퀘벡의 독립에 대한 퀘벡 당수 파리조, 퀘벡연합당수 부샤르, 악시옹 데모크라티크당수 뒤몽 3자 간 합의 사항

13. http://en.wikipedia.org/wiki/Québec_independence_referendum,_1995(검색일: 2009년 1월 29일).

독립이후의 퀘벡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독립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였으며 캐나다의 분열을 바라지 않는 가장 큰 교역상대국인 미국이 독립 이후의 퀘벡이 1994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북미무역자유협정(NAFTA)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압력도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퀘벡인 들에게 부담이 되었다(Fry, 2002: 336).

두 번째의 주민투표도 실패로 돌아가자 퀘벡 당은 연방정부의 금력과 소수민족 표에 패배의 원인을 돌렸다. 이날 퀘벡 주 총리 파리조(Jacques Parizeau)는 “이제 독립은 문턱에 다가왔으며 우리는 또 다시 15년을 기다릴 수는 없다. 아마 다음 번 주민투표는 63~64% 지지율로 우리의 국가를 가질 날이 올 것”이라고 선언하였다.¹⁴ 아슬아슬한 표차로 퀘벡의 독립이 부결된 것을 보고 “합법적 다수”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으며 결국 이 문제는 1996년 6월 연방 대법원에 퀘벡 주가 일방적으로 분리 독립을 선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해석을 구했다. 연방 대법원은 1998년 8월 연방정부의 동의 없이 퀘벡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할 수 없으며 동시에 향후 주민투표 문안은 독립의 가부만을 묻는 명료한 질문이어야 하고 51%가 아닌 명백한 다수일 경우에만 분리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3. 퀘벡의 독립은 가능한가?

퀘벡의 분리주의는 그동안 세단계로 발전해왔다. 첫 번째 단계는 1760년 영국에게 정복당한 이후부터 1960년대 “조용한 혁명” 이전까지는 퀘벡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국 식민지치하에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의 생존이었다. 이 시기 불어는 바로 퀘벡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을 유지시켜주는 “신앙의 수호자”(Balthazar, 1997: 69) 역할을 감당해왔다. 그러나 세속화된 사회에서 종교는 더 이상 문화의 구심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퀘벡은 종교 대신 또 다른 수호자로 신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선택한 셈이다. 두

14. Clip of speech and simultaneous English translation from CBC archives, http://archives.cbc.ca/politics/federal_politics/topics/1891-12470(검색일: 2009년 2월10일).

번째 단계는 1960년대 “조용한 혁명” 이후 자신감을 회복한 이후부터는 영어권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는 평등이었다. 결국 퀘벡 분리주의자들의 압력으로 연방정부는 이중 언어와 이중문화¹⁵ 정책을 입안시켜 불어와 불어문화도 영어권과 동등한 제도적 보장을 이룩해내었다. 물론 이후 이중문화정책이 다문화정책(multiculturalism)으로 선회하면서 프랑스 문화는 영. 불 문화 둘 중의 하나가 아니라 다수 중의 하나로 전락했기 때문에 퀘벡은 맹렬하게 이 정책을 반대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화 간 상호 이해와 존중을 의미하는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 1970년대부터는 퀘벡 독립의 전제조건으로 정치적으로는 독립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캐나다 연방과 연합하는 이른바 “독립-연합”(Sovereignty-Association)을 내걸었으며 이 정치적 구호를 지렛대 삼아 끊임없이 퀘벡 주의 자치권한 확대를 추구해 왔다.

퀘벡은 한때 피임을 금지하는 가톨릭교회의 출산 장려책과 영어권 인구 확산에 대한 방어책으로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였으나 “조용한 혁명” 이후 세속화된 퀘벡사회는 1961년 출산율 4.2%에서 1971년에는 2.3으로 추락했으며 1987년에는 1.3으로까지 추락하여 캐나다는 물론이려니와 서구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비율을 기록했다(Gibbins, 49). 1931년 까지만 해도 퀘벡은 캐나다의 일반 출산율보다 40%가 더 높았으나 이렇게까지 추락해 버린 것을 목격한 퀘벡정부는 이후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책을 펴왔으나 아직도 1.6(2006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¹⁶ 추락하는 출산율을 보완하는 방법은 이민자들의 수급으로 대치할 수밖에 없는데 끊임없는 분리주의의 위협과 불어강제정책으로 인해 신규이민자들도 퀘벡 주에 정착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전망은 실제로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의 집단안보마저 위협하고 있다. 1760년 퀘벡이 영국군에게 정복당했을 때는 절대다수이

15. 후일 이중문화정책은 퀘벡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되어가고 있던 소수민족들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문화정책으로 이중문화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당시 연방총리 피엘 트뤼도는 “비록 두개의 공식 언어가 있다 해도 공식문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어떤 인종도 다른 인종에 대해 우월하지 않다”고 선언하였다(Canada, House of Commons, *Debates*, 12 Oct. 1971, 8545).

16. <http://www.stat.gouv.qc.ca/salle-presse/communiq/2007>(검색일: 2009년 6월 5일).

었고 1867년 캐나다가 자치령이 되었을 때는 양쪽이 비슷한 인구이었다가 138년이 지난 지금 캐나다 인종별 조사를 보면 프랑스계는 캐나다 전체인구의 25%로 추락했다. 결국 프랑스계는 캐나다 건국의 양대 주역이었지만 이젠 퀘벡은 캐나다 전체 10개 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퀘벡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계속 캐나다 연방제 안에 머물러있다가 점점 소수로 전락하여 미래에 완전히 영어권에 흡수되어 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지구책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캐나다는 역사가 짧은 만큼 아직도 국가형성기에 있는 나라이다.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가 1965년, 국가는 1980년, 그리고 자체헌법이 1982년에 마련된 나라로 국가적 정체성이 아직도 매우 미약하다. 국가적 정체성이란 매우 복합적인 것이어서 사회·경제·문화·언어적 요소들과 결합되어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캐나다의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다문화적 구도와 연결되어 있다.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원주의에 대한 철학의 빈곤, 사회의 파편화 현상에 대한 우려, 소수민족 표를 끌어 모으기 위한 수단이라는 등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방지와 인권국가로서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캐나다는 단일인종이나 문화에 기반을 둔 민족주의가 아니라 문화적 모자이크(cultural mosaic)란 구도위에서 국가적 통합을 위한 국가주의를 강변해왔고 어떤 면에서 퀘벡 민족주의는 여기서 파생한 사생아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퀘벡 민족주의는 정치적이거나 프랑스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일종의 지구책이었기 때문에 붙여는 “퀘벡사회에 동화되는 수단(français comme vecteur d’aculturation)”(한민주, 2004: 37)이 되어 왔다.

연방제는 보다 폭넓은 정치적 틀 안에서 국가적 일치와 다양성을 보존하는 정치적 수단이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지역 연방제와는 달리 캐나다나 벨기에 스페인은 다민족 연방제이다. 그러므로 단일한 종족의 정체성이 아닌 집합적 종족 정체성(collective ethnic identity)이야말로 캐나다의 “정체성”이다. 캐나다 연방제는 현재 대략 3개의 방향으로 논의되어 왔다. 첫째는 지방분권주의 혹은 각 주의 권한이 좀 더 강화된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decentralized federalism)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첫째처럼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를 지지하지만 자연적으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셋째는 중앙집권화 된 연방제(centralized federalism) 지지로서 자연자원, 사회보장제도, 교육에 대한 전 국가적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좀 더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단 캐나다 중동부에 위치한 퀘벡 주가 독립해 버리면 캐나다 연방제 존속에 근본적인 문제들을 야기한다.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만일 퀘벡이 분리해버리면 동부 연안의 주들은 본토에 있는 중·서부 주들로부터 고립되기 때문에 연방제는 공중분해 되어버릴 수 있다.

퀘벡주안에 있는 원주민들과 영어권 주민들은 과연 퀘벡이 분리 독립할 경우 어떻게 처리 될 것이며 이들이 계속 캐나다 연방 안에 남고자 할 때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영토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것이며 기타 캐나다의 국가 부채, 군대, 화폐 등 수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양쪽은 잘 알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은 아래의 인용처럼 마치 시소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양쪽의 상황을 잘 압축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캐나다에서) 두 가지 경우 즉, 퀘벡에서 주권을 향하여 퀘벡을 이동시키려는 분리주의자들의 시도의 경우와 그리고 퀘벡을 캐나다 연방 내에 잔류하게 만들려는 연방주의자들의 시도의 경우 모두에서 나타나는 ‘보수적’ 결과의 패턴이다. 분리주의자들의 경우 그들이 퀘벡 주민에게 주권(sovcreignty)이 퀘벡인의 이익을 위해 유리하다고 아무리 강변하여도, 퀘벡인들은 분리주의 정당이 집권하도록 표를 주면서도 집권당에 있는 분리주의자들이 캐나다로부터 퀘벡을 떨어져 나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하게, 연방정부의 경우 퀘벡이 캐나다 연방 속에 남도록 하기 위하여 퀘벡에 대해서 구별되는 정체성을 주려하고 또한 퀘벡에게 특수한 권력을 이양하고자 온갖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 캐나다 국민은 연방정부가 이 같은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데 필요한 전폭적인 지지는 하지 않는다. 이 같은 (보수적) 패턴은 장래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김성진, 2001: 204).

퀘벡도 “독립-연합”에서 의미하듯 캐나다 연방에서 완전한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 상황(status quo)에서 그냥 머무를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영어권 캐나다도 퀘벡의 독립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9개 주와는 다른 “구별된 사회”의 특수성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캐나다는 지역주의 혹은 지방분권주의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이다. 각 지방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캐나다 연방정치는 늘 중개자로서 “중개정치”(brokerage politics)(Simpson, 2003: 5)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 인구의 3/4은 자신들을 캐나다인이라고 호칭하지만 1/4은 먼저 자신이 사는 지방에 동일화시킨다. 그중에서도 퀘벡인들이 가장 많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캐나다인이라기보다는 퀘벡인으로 먼저 내세운다(Hiller, 2000: 38). 광대한 국토위에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종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국가적 정체성보다 자기가 속한 지방에 더 애착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동안 행해진 여러 가지 여론조사 샘플들을 종합하면 실제로 대다수 퀘벡인들은 완전히 독립하기 보다는 캐나다 연방제를 개혁하여 좀 더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나 좀 더 지방 분권을 확대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Laponce, 2000: 298). 더욱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셋방화(世方化 · glocalization)¹⁷는 더욱 이런 지방주의를 부추긴다. 최근의 국제 정치 정세는 유럽연합(EU)처럼 초 국가적기구로 확대되는 방향과 역으로 보다 좀 더 지방분권주의 방향으로 축소되는 두 가지 경향을 띄고 있음을 간파한 퀘벡은 자신들도 유럽연합처럼 북미에서 초국가적 연합체의 한 부분으로서 좀 더 자신들의 정치, 경제적 독립을 성취하려고 하는 초국가주의(supranationalism)(Vadamme, 1981: 76)와 이를 위해 북미 공동시장과 “유로”와 같은 북미의 공동 통화를 지지한다.¹⁸

세방화는 지역 경제가 이제 더 이상 국가적 보호보다는 세계경제와 직접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퀘벡의 예를 보면 1988~99년 사이 퀘벡의 수출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캐나다의 다른 주로 가는 것보다는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이 더 많았고 이처럼 캐나다 내륙으로 이어

17. searchio.techtarget.com/sDefinition/0,,sid182_gci826478,00.html(검색일: 2009년 7월 5일).

18. 1999년에 행해진 앵거스 라이드(Angus Reid) 그룹의 조사에 의하면 58%의 캐나다인들이 공동통화를 반대하는데 비해 51%의 퀘벡인들은 찬성하였다(Globe and Mail, 3 August 1999, A1 and A4).

지는 동서 간 교역보다는 남북으로 이어지는 미국과의 교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Fry, 2002: 332). 퀘벡 독립주의자들은 독립을 두려워하는 퀘벡인들에게 설사 독립하더라도 캐나다 본토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세계경제와 연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Hiller, 2000: 67). 유럽연합 같은 초국가적 지역협력체의 출현을 통해 기존의 근대 국민국가형태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는 퀘벡은 좀 더 느슨한 형태의 캐나다 연방제 안에서 자치정부를 수립하든가 아니면 지방적 분권화와 지역적 다양성을 포용하면서도 어디까지 캐나다가 통합된 국가로서의 개념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연방주의자들과 분리주의자들의 공통과제이자 숙제이기도 하다.

V. 맺음말: 세방화와 퀘벡 분리주의

캐나다처럼 넓은 국토와 상호 이질적인 인종·문화를 가진 나라는 늘 지방 간 상호 통교의 문제가 국가적 난제였다. 그러나 현대기술문명이 가져다 준 정보접속의 편리함과 전자매체를 통한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 혁명은 캐나다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이미 캐나다는 “지구촌”(global village)이론으로 유명해진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 같은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세계적 거장들을 배출해 냈다. 1994년 1월부터 캐나다 정부는 소위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Highway)를 국가적 전략으로 내세웠고 시공간을 압축시킨 초고속 정보 통신망 연결을 통해 인간과 물자의 교류를 막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한 세방화 과정을 촉진시켰다. 커뮤니케이션 통신망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정치·경제적으로 초국가적인 기구들이나 기업들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대중 매체들은 정보의 민주화를 이끌었고 인터넷 확산은 정보의 민주화를 세계적으로 확산시켰다. 오늘날 세계화와 지방화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 전달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전달도 함께 상호 교통한다(Jeffrey, 1998:

169). 디지털 정보기술은 지역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렇게 연결된 네트워크는 지역을 초월하여 세계적으로 즉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방화란 경제·문화적 측면에서 각 지역 들이 상호 경쟁의 강화과정과 세계화의 도전을 통해 발전한다면 세계와 지역, 보편화와 특수화의 역동적 발전의 상호 가능성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퀘벡 민족주의가 구시대적 유물로써 폐기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퀘벡이 세계화 속에서도 민족적 주체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무기중의 하나라는 사실이다. 지방화와 세계화를 융합하는 세방화는 그러므로 퀘벡 분리주의자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인 동시에 기회이다.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 정치·경제적 상호의존도의 심화는 이제 지구상 어떤 국가나 사회도 세계화의 물결을 거슬러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퀘벡도 국수주의적, 폐쇄적 민족주의를 지양하고 세계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능력을 신장시켜야한다. 사실 퀘벡은 분리주의 운동이 창궐하던 1960년 대 후반 잠시 인질 납치 같은 테러가 있었지만 이후 극단적 좌파 민족주의자들이 충동하는 무력에 결코 회유되지 않았다. 지난 40년 동안 퀘벡은 연방제안의 잔류와 완전한 독립간의 절충점을 모색하고자 캐나다 연방정부와 지난한 협상을 계속해 오면서도 공동체적 협력과 상호보완관계를 회피하지 않았으며 문화적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분리주의의 최대 무기인 불어강제정책(Bill 178)까지도 완화 수정시키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 타국을 정복하고자 하는 공격형 민족주의, 배타적 국수주의, 국가나 민족에 대한 이상화 등은 경계해야 하지만 모든 민족주의가 반드시 반(反)세계적인 것은 아니다. 세방화 시대 열린 민족주의란 혈연적 표준이 아니라 다양한 민의가 합의된 표준으로서의 민족 혹은 국가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민족주의가 빠질 수 있는 극단을 경계해야 하지만 한 단위체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차원의 민족주의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퀘벡은 지역의 산업 및 문화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폐쇄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무대로 발돋움할 수 있

도록 퀘벡의 경제·문화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차원에서 행동함으로써 세계화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냉전 체제를 대체한 세계화 체제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 갈등과 불안을 증폭시켰다. 이라크, 체첸, 코소보,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도처에서 인종적·종교적 분쟁이 여전히 빈발하고 있고, 세계경제도 곳곳에서 거품의 발생과 파열을 거듭하면서 최근 소위 경제위기를 전 세계적으로 파급시켰다. 세계화는 경제를 넘어 문화적 측면에서도 미국화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미국의 규범과 가치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우려는 세계 곳곳에서 반세계화 시위로 이어져 미국에 경고음을 내고 있다. 사실 세계화가 곧 미국화를 촉진시킨다는 지적에 가장 민감한 나라는 캐나다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출주도형 경제인 캐나다의 수출의 85%가 미국을 향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의 대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캐나다야 말로 미국화는 곧 자신들의 국가적 정체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바로 새로운 제국주의”¹⁹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중심인 미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퀘벡인들의 민족적·문화적 정체성 유지는 세계화의 향후 노정에 시사 하는바가 매우 크다. 미래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든 문화적 다양성, 또는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지구상의 다양한 문화가 가지는 다양성과 특수성의 가치에 대해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세계화의 폐해를 제어하는 길은 어떤 패권국가에 의해 수직적, 획일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차이와 다양한 문화들이 자신들의 특수성을 인정받는 가운데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글로벌 시장의 형성과 심화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지만 과연 이 확대가 글로벌 문화를 파생시킬 수 있는지는 많은 의견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세계화의 동력이 비단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문화의 영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위 문화의 세계화란 측면에서 보면 민족주의는 다양한

19. http://www.larouchepub.com/other/govt_docs/2007/3406(검색일: 2009년 7월 1일).

합의를 지닌다. 민족주의는 근대 국민국가의 유산 혹은 이와 연관된 구시대적인 이데올로기로 취급되어 정치철학에서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다. 개별성을 담보로 하는 민족주의는 보편성을 담보로 하는 세계화와 형식논리적면에서 상충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족적·지역적 특색이 유지되는 세방화는 각 민족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각 지역의 경제·문화산업의 세계 진출을 가능케 할 것이다. 지난세기 민족의 독립을 주장했던 정치적 민족주의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문화적 주장이 민족주의 전면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처럼 내용이 변화된 민족주의가 이미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역동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신민족주의의 중심축에서 관찰되고 있다. 전자 매체에 의한 세계적 범위의 문화 인식이 확대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졌지만 동시에 개별 문화의 가치와 공존의 필요성도 동시에 주장되고 있다.

퀘벡 분리주의는 북미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어권 문화 속에서 생존해야만 하는 프랑스 문화의 생존전략이기 때문에 그 속에 존재하는 민족적 개별성과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변증법적 논리에서 접근해야 한다. 캐나다가 1988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다문화주의를 국가적 문화정책으로 택한 목적은 국가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화는 그 의미 자체로 “다수”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며 다문화주의는 어떤 종류의 중앙집권화나 수직성도 배격하고 있는 개념이다. 다문화주의의 기본요소인 다양성과 관용성은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각 인종과 문화적 공동체의 자유도 보장해야 하지만 동시에 공통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상호 존경 그리고 평등은 다문화주의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세계화가 미국과 같은 한 패권국가에 의해 획일화된 모형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세계 각 지방의 고유한 민족주의나 문화를 통해 통제 가능한 세계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로 캐나다 문화정책의 핵심인 ‘모자이크’적 모형의 세계화를 지향해야 한다.

역사가 일천한 캐나다는 형성과정 속에 있는 국가적 정체성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모색해야 하듯 퀘벡 민족주의도 배타적인 국수주의를 극복하면서 세계화의 조류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늘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

다. 캐나다 건국의 순간부터 영. 불 양대 세력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상호 공존의 방식을 터득해왔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캐나다는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미래에도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런 다양성 안에서 사회적 통합과 평등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이다. 이런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때 캐나다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인권·평화 그리고 인간안보 분야에서 쌓아온 명성과 지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사회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쥔 나라들이 주도해나갈 것이다. 문화도 역시 경제와 마찬가지로 타문화와의 접촉과 경쟁이 가져오는 창조적 긴장 속에서 더 풍요로워진다. 인류 역사에서 융성했던 국가는 대개 문화적 잡종성(cultural hybridity)(Kraidy, 2005: 148)을 용인한 나라였다는 사실을 세계사는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현대 세계에서 문화적 잡종성은 오히려 지배 세력이 원하는 획일적 보편화를 방해하는 기제 역할을 통해 세계화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미래시민사회 구성원의 자격은 다양성과 타자의 견해를 수용할 줄 아는 능력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21세기의 문화는 문화의 차이와 충돌을 생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것”이기 때문이며 바로 그러한 “논쟁을 통해 배우는 것이야말로 미래시민사회의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건강하게 훈련시켜주기 때문이다”(J. Phelan, 1995: v). 퀘벡사회가 이런 훈련을 통해 미래사회에 세계시민주의와 민족국가의 이상적인 조화를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범사례를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면 바로 이웃에 있는 초강대국인 미국 문화의 전 지구적 표준화에 대항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기도 하며 이것이 바로 퀘벡의 미래 경쟁력과 활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건. 2001. 『캐나다의 문화와 사회』. 부산대학교 출판부.
 문영석. 2005. 『캐나다 이민연구: 역대이민정책의 분석과 전망』. 강남대학교 출판부.
 한민주. 2004. 「캐나다 퀘벡의 언어정책」. 『불어 불문학 연구』 59권. pp. 370.

- Morton, Desmond. 2001. 문영석 외 옮김. 『캐나다의 역사』.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Balthazar, Louise. 1997. "The Faces of Québec Nationalism." *A Passion for Identity: An Introduction to Canadian Studies*. David Taras and Beverly Rasporich eds. Toronto: ITP Neson. pp. 69.
- Fry, Earl H. 2002. "Quebec'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he American Review of Canadian Studies* 32(2). pp. 336.
- Graff, G. and J. Phelan. 1995. eds. *Adventure of Huckleberry Finn: A Case Study In Critical Controversy*. Boston: St. Martins Press.
- Greer, Allan. 1999. *The People of New Franc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Hiller, Harry H. 2000. *Canadian Society: A Macro Analysis*, 4th ed. Toronto: Prentice Hall.
- Jeffrey, Liss. 1998. "The Impact of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Change on Culture and National Identity: A Call for Visionary Pragmatism." *The Culture/Trade Quandary: Canada's Policy Options*, Dennis Browne ed. Ottawa: Centre for Trade Policy and Law. pp. 169.
- Kraidy, Marwan M. 2005. *Hybridity: or the cultural logic of globalization*. Philadelphia: Temple.
- Lacoursière, J. and J. Provencher, D. Vaugeois. 1977. *Canada. Québec. Synthèse historique*. Montreal: Éditions du Renouveau Pédagogique.
- Lahey, Raymond J. 2002. *The First Thousand Years: A Brief History of the Catholic Church in Canada*. Ottawa: Novalis.
- Laponce, Jean. 2000. "Canada One Hundred Years from Now: A Federation of Nations?" *The Canadian Distinctiveness into the XXIst Century*, Chad Gaffield and Karen L. Gould eds. Ottawa: University of Ottawa Press. pp. 298.
- Lee, Shane. 2004. "Canada's Bilingualism: A Blessing or a Curse?" *Indian Journal of Canadian Studies*, Vol. XII. pp. 186.
- Linteau, Paul-André. 1988. ed. *Histoire générale du Canada*. Montréal: Bibliothèque nationale du Québec.
- Roger Gibbins, Roger. 1990. *Conflict and Unity 2nd ed*. Scarborough: Nelson Canada.
- Salée, Danile and William D. Coleman. 1997. "The Challenges of the Québec Question: Paradigm, Counter-paradigm, and ...?" *Understanding Canada: Building on the New Canadian Political Economy*. Wallace Clement, ed. Montreal & 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pp. 268.
- Saywell, John. 1994. *Canada: Pathways to the Present*. Toronto: Stoddart.
- Simon, Sherry. 1997. "Notes on Some Paradoxes of Contemporary Québec Cultur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Zeitschrift für Kanada-Studien* 32(2). pp. 72.
- Simpson, Geoffrey. 2003. "The Canadian Identity: An Idea in Search of a Reality." *Australian Canadian Studies* 21(2). p. 5.
- Stasiulis, Daiva and Radah Jhappan. 1995. "The Fractious Politics of a Settler-Society:

- Canada,” in *Unsettling Settler Societies: Articulations of Gender, Race, Ethnicity, and Class*, ed. Daiva Stasiulis and Nira Yuval Davis. London: Sage. pp. 97-99.
- The Canadian Encyclophedia*. Year 2000 Edition. 1999. Toronto: McClelland & Stewart Inc.
- The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 2005. Erin McKean ed. Seco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Tilly, Charles. 1994.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0*. Cambridge, Mass., USA : B. Blackwell.
- Thomson, Dale C. 1988. *Vive le Québec Libre*. Ottawa: Deneau Publishers.
- Urquhart M.C. and K. Buckley. 1965. *Historical Statistics of Canada*. Toronto: Macmillan.
- Vadamme, Jacques. 1981. “Regionalism in Europe.” *Regionalism and Supranationalism: Challenges and Alternatives to the Nation*. David Cameron, ed. Montreal: The Institute for Research on Public Policy. pp. 76.
- Canada. House of Commons. *Debates*. 12 Oct. 1971.
- The Canadian Encyclopaedia*. 1999. Year 2000 Edition. Toronto: McClelland & Stewart Inc.
- The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 2005. Erin McKean ed. Seco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Globe and Mail. 3 August 1999, A1 and A4.
- 2001, 2006 Census, Statistics Canada(검색일 2009년 1월 20일).
- <http://www.cbc.ca/canada/story/2006/11/22/harper-Québec.html>(검색일: 2008년 12월 3일).
- Clip of speech and simultaneous English translation from CBC archives, http://archives.cbc.ca/politics/federal_politics/topics/1891-12470(검색일: 2009년 2월 10일).
- <http://geography.about.com/cs/politicalgeog/a/statenation.htm>(검색일: 2009년 2월 20일).
- http://en.wikipedia.org/wiki/Québec_independence_referendum,_1995(검색일: 2009년 1월 29일).
- <http://www.stat.gouv.qc.ca/salle-presse/communiq/2007>(검색일: 2009년 6월 5일).
- http://www.larouchepub.com/other/govt_docs/2007/3406(검색일: 2009년 7월 1일).
- http://searchcio.techtarget.com/sDefinition/0,,sid182_gci826478,00.html(검색일: 2009년 7월 5일).

A Nation within A Nation?: Prospect of Québec Separatism

Moon, Young-suck

Associate Professor of Canadian Studies, Kangnam University

France established its first settlement in the region in the present day city of Quebec, and controlled the largest colony in North America between the early 16th to mid 18th century. Although the French colony fell into English control in 1759, the French colonists maintained their cultural identity and language for 400 years, like a lonely island amid an English ocean. The recent actions of the Quebec separatists threatened Canadian Confederation with two referendums seeking Quebec independence. The separatists insisted upon the establishment of a “distinctive society” within Canada, as a means of preserving their unique language, culture, and racial, differentiating themselves from English Canada. The French were “co-founders” of the Canadian nation, but have become an ethnic minority and their language and cultural influence limited to the region of the Province of Quebec. And so, they fought for independence from Canada. Québec separatism can be seen as a dialectic logical fusion of individual ethnicity and cultural plurality of French cultural independence amid an absolute majority of English culture.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prospect of Quebec separatism in the era of glocalization, focusing on the bridging of the global with the local nexus.

Key Words: Nationalism, Separatism, Québec, Glocalization, Multiculturalism, Quiet Revolution